

이 보도자료는 2019. 7. 29.(월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인천지방검찰청

공보담당자
인권감독관 최현만

전화 032-861-5052 / 팩스 032-860-4359



인천범죄피해지원센터
KCVIA • Korean Crime Victims Support Association

보도자료

2019. 7. 29.(월)

자료문의 : 인권감독관실

전화번호 : 032-861-5052

주책임자 : 부장검사 최현만

제 목

인천지검,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실적 최우수청 선정

- 2018년 하반기, 2019년 상반기 연속 -

- 인천지방검찰청(검사장 김우현)과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(이사장 이상국)는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, 대검으로부터 작년 하반기에 이어 올해 상반기도 ‘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최우수청’으로 선정됨
- 앞으로도 인천지방검찰청과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그 보호·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, 인천지역 주민을 위한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임

1 개요

- 인천지검과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를 보호·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1년간 (2018. 7. ~ 2019. 6.) 약 1만 8천 건의 재판결과 등 통지, 약 1만 건의 상담을 실시하였고, 약 1천여 명의 피해자에게 범죄피해구조금 및 경제적 지원을 실시
-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범죄피해자를 위해서는 후견신탁 모델을 전국 최초로 개발하고, 법정에 동행해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

- 또한 범죄피해자 자조모임 결성 및 정기적인 모임 개최 등 범죄 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상처를 딛고 일어나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활동도 병행
- 범죄피해자를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활동에 힘입어 2018년 하반기에 이어 2019년 상반기에도 연속하여 대검 선정 1그룹 7개청 중 최우수청으로 선정되었고, 향후에도 계속 노력할 예정임

2 피해자 지원 대표 사례

① 전국 최초로, 피해자 유족을 위한 후견신탁 모델 개발

-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에게는 범죄피해자보호법(제17조)에 따라 유족구조금을 지원함
- 소위 ‘인천 뱀파이어 친모 살인사건’에서, 유족구조금 지급대상인 피해자 유족에게 지적장애가 있어 재산 관리를 지원해 줄 후견인 선임 필요성이 대두
 - ※ 인천 부평에 거주하는 20대 조현병 환자가 ‘뱀파이어로 보인다’는 이유로 친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어 여동생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
- 인천지검 검사가 서울가정법원에 특정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였고, 청구 인용됨
- 사단법인 온율이 특정후견인이 되어 피해자 유족의 재산관리, 자립 준비 등을 지원, KEB하나은행에서 유족구조금을 신탁·관리하기로 하고 신탁계약 체결식 개최(2019. 5.)

※ 특정후견인 제도 : 질병, 장애, 노령,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

- 구조금을 일회적으로 지급하는데 그치지 않고, 구조금이 피해자 유족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방안을 창의적으로 고안해낸 것으로, 전국 최초 사례임



<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을 위한 신탁계약 체결식 >

② **연락두절된 피해자 가족을 적극적으로 수소문해 구조금 지원**

- 범죄로 사망한 피해자에게 자녀가 있을 경우, 피해자 모나 형제 등 다른 가족은 실제 동거하였더라도 유족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고 (치료비, 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은 가능), 피해자 지원의 시효는 3년
 - 가해자가 나무막대 등으로 피해자를 구타해 피해자가 치료를 받다 결국 사망하게 한 상해치사 사건에서, 지난 1년 7개월간 연락이 두절된 피해자 아들을 수소문해 찾아 유족구조금을 지원 (2019. 4.)
 - 또, 가해자가 여동생의 내연남(피해자)을 살해한 후 자살한 사건에서, 피해자의 모에게 장례비를 지원한 후, 지난 6개월간 연락이 두절된 피해자 아들을 찾아 유족구조금을 지원한 사례도 있음 (2019. 7.)

③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보호 지원 사례

-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북한이탈주민인 사건에서 심리상담, 법률 지원, 신변보호 및 법정동행, 유족구조금 등 다양한 지원 실시
- 다문화가정에서 발생한 친딸 강간 미수 사건에서, 베트남 국적의 친모와 피해자에게 심리상담, 법률지원, 학자금, 생계비 등 지원

④ 그 외 다양한 지원 사례

- 상해사건의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뒤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, 피해자가 합의금 조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'피해자가 돈에 눈이 멀었다'고 비난하는 등 2차 피해 우려 발생
- 이에 당청 담당자가 법정에 피해자와 동행한 후, 재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피해자측의 억울한 입장을 대변해 합의과정과 상황을 설명함으로써 피고인측의 부당한 비난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함
-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려고 채권자를 살해한 사건에서, 가해자에 대한 형사 재판을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유족면담도 이어가 점차 심화되는 유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주거지원 추가 실시

3 심리치유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

① 청소년 피해자 심리치유프로그램 진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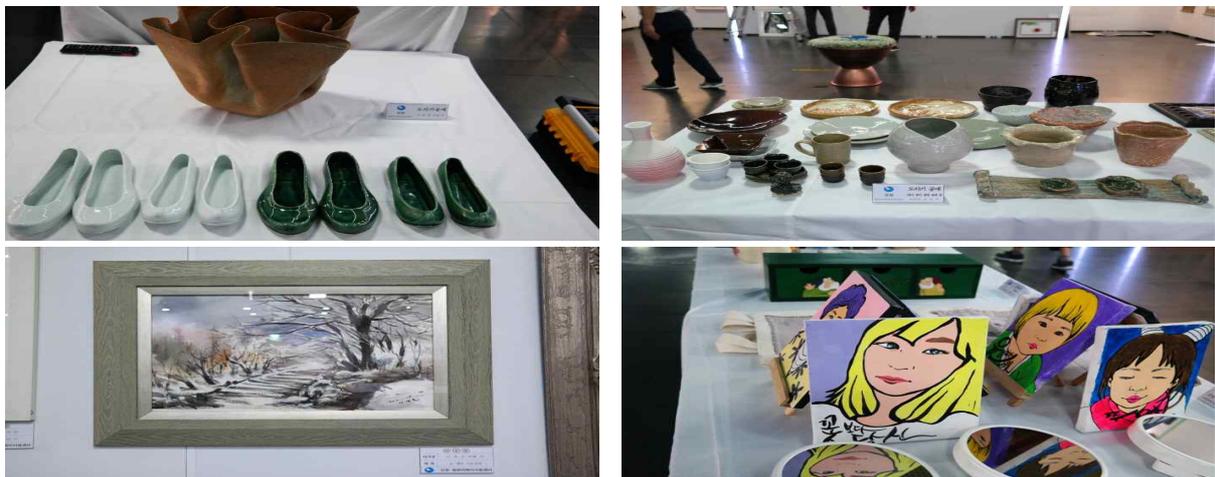
-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19. 3.경 범죄피해자 중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'집단심리치유프로그램'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

※ 강력범죄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이 서로 경험과 감정을 공유하고 교류하면서 심리적으로 안정되고, 위축되었던 자존감을 회복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

- 캘리그래피 체험 (대검찰청 캘리그래피 동호회의 재능기부), 영화 관람, 경복궁 견학, 다링 안심캠페인¹⁾ 걷기 대회 참가, 야구경기 관람, 도자기 체험 프로그램 참가 등 다양한 형태로 활발히 진행
- 청소년 20여명이 꾸준히 참여하고 있고,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대검에서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고, 전국으로 사례 전파

2 '어울림' 작품전시회 개최

-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들이 심리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해 만든 공동작품(그림, 원예, 도자기, 공예품 등) 전시회 개최
- 작품활동은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고, 작품제작시 심리적 안정도 도모할 수 있어 범죄피해자들의 심리치유에 도움
- 공동으로 만든 작품이라는 의미를 담아 '어울림'이라는 부제로, 서울시청 시민홀에서 3일간(2018. 7. 15. ~ 7. 17.) 전시회를 개최



<어울림 작품전시회>

1) 다링 안심캠페인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관심과 후원을 장려하자는 취지로 에스원과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주최하고 법무부가 후원하는 캠페인으로, 다링은 하나의 목표를 가진 '원' 안에서 모두가 '하나'됨을 상징하는 '다(ALL)'와 '링(RING)'의 복합어이다.

③ 피해자 자녀를 둔 부모들의 자조모임 지속

- 범죄피해를 당한 직후, 당장의 생계비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, 그 이후 범죄로 인한 후유증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
- 이에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11년경 범죄피해를 당한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모여 자조모임을 결성하도록 기반을 마련
 - ※ 자녀가 범죄피해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, 가족 구성원 간 신뢰감을 향상시키는 법, 대화하는 법 등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
- 현재까지 8년째 모임이 이어져오면서 모임 결성 당시에는 학생이었던 범죄피해자가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직하는 등 성장하였고, 상호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 중임

④ 주말농장 ‘행복나눔 밭’ 운영

-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12년경부터 주말농장을 운영, 범죄 피해자에게 쌈채소를 직접 재배·수확하는 즐거움을 느낄 기회를 부여하고, 수확한 농작물은 범죄피해자의 가정에 제공 ☐